



## “도와주세요”

인도네시아 롬복 지역에서 연이은 강진과 여진으로 말미암아 재산 및 인명피해가 크게 났다. 병원도 붕괴 위험에 처했다. 사진은 병원이 아닌 임시 처소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이다.

# “대한민국 가치 인정하려면 건국일 정확하게 기념해야”

## 대한민국 건국일 논란 ‘맞짱’ 토론회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 주장

8.15 광복절을 맞아 논란 많은 건국절 토론회가 열렸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양동안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고 주장하고, “1919년 건국일”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양동안 교수

양동안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건국일이 언제인지를 놓고 10여 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틈에 국민 압도적 다수가 조국의 건국일을 틀리게 알거나 모르고 있다”며 “국가가 건립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대한민국이 아직도 ‘생일이 불확실한’ 국가라는 것은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건국일이 불확실한 국가’였던 것은 아니었다. 1949년 8월 15일 정부는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으며, 모든 정당과 신문들은 독립 1주년 기념 성명을 발표하고 기념 기사를 보도했다. 양 교수는 “국가의 독립과 건국은 실천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1949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독립 1주년이 되었다 함은 곧 그 1년 전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실제로 1949년 독립 1주년 기념 기사를 보도하는 데 일부 신문은 ‘건국 1주

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정당들의 성명에서 대한민국 건립(설) 1주년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 교수는 “이후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란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인정되어 왔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일이 생긴다. 양 교수는 “1980년대 좌익운동권이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전투쟁의 일환으로 해방전후사 및 한국현대사를 대한민국 부정적 관점에서 서술한 도서들을 대량으로 쏟아내면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성 및 국가적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독립’이나 ‘건국’이란 용어의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됐다”고 밝히고, “좌익운동권의 이런 투쟁에 점차 비좌익의 한국사 연구자들도 동조하게 된다”고 했다.

양 교수는 “그런 경향이 해가 갈수록 강화되어 건국 60주년 되던 해인 2008년 광복회와 한국사학회 및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합세,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19년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 ‘건국 60주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밝히고, “김정일 이명박 정부에는 이에 굴복했고, 이후 행정부 관리들은 ‘건국’이란 용어의 사용을 회피했으며, 언론매체들도 이에 동조했다”며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건국일을 잃어버렸고, 오늘날 ‘생일 없는 인간’과 같은 초라한 국가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일이 실존적으로

해서, 각급 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우리 민족의 과거 국가들의 건국일은 다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 민족의 현재 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기록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대한민국 건국일을 모르게 된 것”이라 했다. 이어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한 층 더 악화됐다”고 지적하고, “문 대통령이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 연도이며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 연도로 주장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발언했기 때문인데, 국가원수가 이런 입장을 취하니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세력의 기세가 더욱 등등해졌다”고 했다.

양동안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노력은 3.1운동에서 시작됐다고 봤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뤄진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라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을 거행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했다”며 “미군정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이날 밤 12시를 기해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 곧 주권을 인수했는데, 이로써 국가 구성의 4개 필수 요소인 영토 국민 정부 주권을 완비한 대한민국이란 독립국가 탄생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렇다면 왜 1919년 건국설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걸까. 양 교수는 “1919년 건국설을 개진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4가지가 된다”고 말하고, “그 중 가장 광범위하게 주장되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 헌법 전문에 ‘민주독립국가’를 제헌함’이라는 구절이 있고, 초

대 대통령 이승만이 임시정부 수립연도인 1919년에서 기산하는 ‘민국’연호를 사용했으므로 대한민국 건국연도가 1919년이라는 주장”이라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기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비롯됐다고 헌법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범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했으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라는 주장 ▶1919년 4월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연도를 1919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 ▶1919년을 건국연도로 하면 국제법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므로 1919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존재한다고 그는 봤다.

그러나 양 교수는 이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인간도 자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생일을 기념한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이 가치있는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건국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임시정부가 1919년 건국설을 부인하는 사료들을 많이 생산해 냈다”고 말하고, 신뢰도가 극히 낮은 사료에만 의존해 자기들의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그 학문하는 자세의 기본과 도덕성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도 이야기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건국일 논란에 대한 ‘맞짱’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의 사회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양동안 교수와 이영훈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이주천 교수(전 원광대 사학과) 등이 나섰으며, (진보)민주주의 진영에서는 김민철 연구위원(민족문제연구소), 전우용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 삼용환 교수(성공회대 외래교수) 등이 나서서 토론에 임했다.

조은식 기자

# 인도네시아 강진으로 원주민 패닉... 경제·치안상태 불안정

## 연이은 지진으로 KWMA 등 긴급구호사업 및 모금활동

인도네시아 롬복 지역에서 연이은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나서서 지진사태에 대해 긴급구호사업 및 모금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지진은 2018년 7월 29일, 롬복(Lombok) Timur 북부지역 Kecamatan Sambalia Desa Obel-obel에서 발생한 6.8의 대형 지진이었다. 이어 2차 지진은 2018년 8월 5일에 서부 롬복에서 강도 7.0의 지진이었다.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은 북부 지역(탄중), 동롬복, 마파람 지역입니다. 3차 지진은 2018년 8월 9일에 롬복 섬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강도 6.2의 지진이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유엔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8월 11일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 통계로 사망자는 321명, 심각한 부상자가 1,000명, 이재민은 270,168명에 이른다고 한다. 파괴된 가옥과 건물은 수천 채에 이른다고 보도됐으며, 건물에 묻힌 사상자가 계속 발굴되면서 사망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WMA 롬복 위기관리긴급구호 담당자인 이석희 선교사가 전해 온 긴급보고에 따르면, 북부 롬복 탄중 지역 회교사원 붕괴로 3명 사망 구조 중에 있으며, GPSS, GPIB 등 롬복 시내 3개 교회 건물이 파손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교회 사망자는 없었다. 또 롬복 시내 2개 대형병원(마파람 국립대학병원, 마파람 국립병

원)이 붕괴 위험에 있고, 도립병원 외 치료처가 마땅치 않아 수많은 환자들이 임시처치 혹은 방치된 상황이라고 한다.

마파람 시내 대다수의 지역이 수도관 파열로 흙탕물만 나오거나 수도물 단수가 됐으며, 롬복 생수공장이 가동 중단으로 인한 물 부족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롬복 대부분의 가정들이 여진의 발생으로 밤에는 운동장이나 마당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으며, 5개의 대형 교량(따뽀스, 로콕두렌, 록두렌, 소공교량, 로콕따뽀스) 붕괴로 지역간 단절 및 구호물품 수송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북부지역이 타격이 커서 대다수의 주택 붕괴, 전기 단절로 야간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며, 8월 7일까지 강도 4-6의 크고 작은 여진이 230회 지속되고 8월 9일 강도 6.7의 여진 발생으로 발생으로 롬복 사상 원주민들이 패닉 상태라고 한다. 주민 80% 이상이 야숙 중이다. 현재 경제, 치안상태 불안정 상태로, 정상적인 경제 및 치안 회복이 되기 위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석희 선교사는 “물, 생필품, 영아들을 위한 우유, 여성 생리대, 텐트 등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건물, 교량 보수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29301-04-112345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홍은혜 기자

## ‘8.15 한국교회 미스바대각성 구국금식기도성회’ 호소문 발표

오는 15일 서울시청 대천문 앞에서 ‘8.15 한국교회 미스바대각성 구국금식기도성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13일 오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 사무실에서 관련 기자회견이 열려 대국민 호소문이 발표됐다.

주최 측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과 한국사회 만연해 가고 있는 사회시장경제, 잘못된 국방과 안보, 전교조에 장악된 교육 등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자살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된 원인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 때문”이라 지적했다.

나아가 “보다 본질적인 것은 한국교회의 죄와 분열에 있는 것을 깨닫고 한국교회가 지은 죄 인본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거짓, WCC, NCCCK 등과 연합함으로 배도한 죄와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아 거짓평화를 옹호한 죄 등을 회개하고 건국 70년, 해방 73년, 북한 정권 70년 곧 하나님의 때인 회년을 맞이한 급변에 회개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구국기도를 드리기 위해 미스바대각성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히 주최 측은 ‘우리의 결의’를 통해 NAP 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야기될 문제의 위급성을 지적하고, “이법이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공산주의 확산과 종교탄압과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고 있는 데,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성경적으로 교

회뿐만 아니라 대 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 몇 가지를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을 철회하고 종교탄압을 중지하라 ▶사회주의 헌법개정, 연방제 통일 음모를 중지하라 ▶우리나라를 베트남과 같이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려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확행을 중지하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사회경제 정책을 중지하고 자유시장경제 정책으로 전환하여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나라 ▶탈원전 정책을 중지하고 가장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원전을 즉각 다시 가동하라 ▶한미동맹을 한중동맹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어리석은 망상을 버리고 한미동맹을 미중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축인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법치주의 원칙을 따라 국가를 운영하라 ▶나라의 위기를 몰고 온 왜곡된 언론과 역사 교육을 즉각 중지하라

주최 측은 “이상의 우리의 결의 사항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인들과 애국세력은 현존제인 정부가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저항할 것을 결의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는 한기총 주최로, 한국교회 미스바대각성 구국금식기도성회 준비위원회와 대한민국사랑운동본부 등이 함께 주관한다.

박용국 기자



# 北 리선권 “정상회담 날짜 다 돼 있어” 조명균 “北 일정과 상황 감안해 협의해야”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북측 대표단을 이끈 리선권 단장이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의) 날짜도 다 돼 있다. 9월 안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리 단장은 그러면서 “기자 선생들 궁금하게 하느라 날짜를 말 안 했다. 날짜도 다 돼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정상회담 외 경제협력 등 다른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앞으로 추동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도 다 모색했고, 원인으로 찾았다”며 “오늘 회담이 잘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리 단장은 종결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전반 문제를 재점검하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추동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오늘 회담을 요약했다.

리 단장은 또 “오늘 이 회담을 계기로 북남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문제들이 더 혁신적으로 진전되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북남 사이 미해결로 되고 있는 문제,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책임적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북남 관계를 일성대로 발전시키고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를 실행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

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리 단장은 “이번 회담을 진행하면서 북남 협력 교류에 대한 성원과 열의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이게 하나 된 민족의 모습이구나’, ‘이 열망과 소망을 그대로 끌고 나가면 민족 화해 번영 통일 순식간에 이뤄진다’고 생각한다”고 고위급회담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9월에 예정된 평양 수뇌상봉과 회담 때 각자 책임을 다하고 뜻뜻한 마음으로 만나길” 기대했다.

이날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군사, 체육, 철도, 도로, 산림 등 여러 분야를 두루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대표단을 이끈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브리핑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가 완료되는 대로 개소식을 개최하고,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철도, 도로, 산림 협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북측 예술단 방남 공연 문제, 10.4 선언 공동 기념 문제 등에 대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필요하면 직접 만나는 계기에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회담 날짜를 9월 안으로 넓게 잡은 배경이 무엇이나’는 기자들의 물음에

“북측의 일정과 상황들을 감안해 일



남북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리선권 단장

공동취재단

단 가급적 빨리하자는 방향에서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설명했다.

조 장관은 ‘9월 안에’라는 표현에 대해 “조정하는 북측의 일정이나 상황을 감안

해서 양측간 합의된 표현”이며 “8월 안이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예상치 않은 문제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리 단장의 발언이 어떤 부분이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늦춰질 가능성이 있나’는 지적에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릅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가 되면서 가을정상회담은 일단 준비에 착수했다고 표현해

도 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정상회담과 관련해 실무회담도 해야 하고, 의제 문제와 관련해 양측 간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회담을 갖자’, ‘실무회담을 어떤 형태로 가질 것인가’ 정도까지만 얘기했다”면서 “(실무회담) 시기 등은 아무래도 정상회담 일정을 구체화하면서 역산해서 남북 간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이 회담날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북미대화를 통해 종전선언을 합의하지 않은데다 문제인 정부도 북미대화 결과 없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13일 남북이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9월 초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9월 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실적 여건”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김 대변인은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만 답했다.

북한은 올해 70주년을 맞는 정권수립 일(9·9월)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서울평양뉴스

## 전문가들, 정상회담 날짜 미합의 “남북 불협화음 vs 유동적인 상황”

13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조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원하는 우리 측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북측의 불협화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8월 말~9월 초 조기 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이 원하는 ‘판문점선언 사업 구체화’에 대해 양측이 타협을 시도했지만, 원만히 풀리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리선권 단장이 모두발언에서 이에 대해 불만을 표했음을 지적했다.

리 단장은 종결회의 후 모두발언에서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타협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북측이 원하는 것은 판문점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인데, 우리 입장에서 제재 때문에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고위급회담에 대해 “양측이 언론보도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9·9절 이후~9.18 유엔 총회 전인 9월 중순이 가장 유력하다. 이 시기를 넘어가면 9월 말 추석 연휴가 되는데, 추석 때 정상회담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이날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북측의 대표단 면면을 보면 판문점선언의 이행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며 “그 사람들이 각자 발언하기 시작하면 정상회담 날짜를 잡는 데 적절치 않은 분위기가 돼, 9월 중에 한다는 식으로 미뤄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가 열리기 전에 결론이 나와 하는데, 이게 미뤄지면 종전선언도 늦어지고 비핵화도 늦게 시작한다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도 “정상회담 개최가 9월 중순을 넘어가면 사실상 유엔 총



조명균 장관이 남북고위급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공동취재단

회를 계기로 9월 말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분석했다.

또 “결국 우리 정부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 열리면 합의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실무형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날짜도 다 돼 있다”는 리선권 단장이 말대로 남북이 정상회담 날짜를 정해 놓았지만 북미간 조율상황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시기가 임박한 지금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공개하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과 그가 북측에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날짜 공개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시기로’ 9월10일 이후’를 특정한 것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9월 방북, 11~13일 동방경제 포럼 등의 유동성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내달 11~13일에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은 문제인 대통령 대신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하면 남북정상회담은 내달 11~15일에 열릴 가능성 높다”고 내다봤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 측은 원래 가을에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려 했었고, 북측도 느긋하게 생각하다 앞당기려다 보니 날짜 확정이 안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비판론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북미간 교착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조기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보려고 한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모양새가 좋게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북측에 제시하는 타협안을 북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평양뉴스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나누는 것

My Kids 찾기

Facebook

김치와 월드비전 한국지사 **봉어탕 자수**

이름: Baeun

성명: 김나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십시오

아름다운 세상을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 모바일 앱 mykids.vv.or.kr로 접속해주세요.

mykids.vv.or.kr

2018 후원금 모집기간

-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후원 정보기 제공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이름과 성소를 기록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이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보아 이들의 건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 1회 이름연락처와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한 변화

- 월드비전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의 영장, 보건, 교육, 교육 및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 이동후원은 한 아이의 밝고 밝은 미래를 위한 기부금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무슬림의 ‘IS 매뉴얼’ 반박? “거짓 교리 ‘타끼야’ 때문”

한기연·한장총 무슬림선교훈련원장

4HIM 대표 이만석 목사 이슬람전문칼럼

얼마 전 영국의 반극단주의 조직인 “캘리암”이라는 단체가 “지하디스트 성경”이라고 불리는 579쪽짜리 “IS(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매뉴얼”을 공개했다고 한다. 캘리암은 이 매뉴얼을 2015년 온라인에서 입수해 2년 동안 분석한 끝에 IS의 지침들이 이슬람의 가르침을 왜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을 토대로 하여 IS가 내린 지침들마다 왜 그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이 아닌지를 조목조목 반박을 달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IS의 지침서에는 시신훼손을 비롯해 인간장기 매매, 참수, 어린이 살해, 세계를 표적으로 한 테러 등 갖은 야만행위가 담겨 있고, 대량파괴무기(WMD)의 사용, 민간인 살해, 성노예인질 확보 등이 매뉴얼의 각 장을 장식하고 있다. 특히 ‘전투 중인 배교자에 대한 무차별적 살해’라는 장에는 신약인인 아닌 이들(즉 이슬람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폭력행사를 촉구하는, 매우 선동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다. 아랍어로 된 이 매뉴얼을 번역하고 반박 자료를 낸 캘리암의 책임연구원 셰이크 살라 알안사리는 IS의 이러한 지침이 절대 종교적이지 않다(즉, 이슬람적이지 않다는 뜻)고 지적했다. 알안사리는 전투와 관련한 이슬람 전통은 전쟁포로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를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캘리암이 IS 매뉴얼을 공개하는 목적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논박함으로써 IS가 더 이상 추종자들을 포섭하는 것을 막고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2018.5.14.일자).

IS의 반인륜적이고도 잔인한 지하드 지침서는 마땅히 반박되고 폐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반박하는 이유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변호하고, 이슬람극단주의와 이슬람이 마치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선긋기 하려는 숨은 의도 때문은 아닌지 의심을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소위 반 극단주의 단체라는 ‘캘리암’은 어떤 곳일까?

‘캘리암’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첫 영국인으로서, 영국에서 최초의 모스크를 세웠던 인물의 이름을 딴 단체이다. 홈페이지에는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Quilliam은 세계 최초의 반 극단주의



이만석 목사

조직으로서, 모든 종류의 극단주의와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편적 인권 기준과 일치하는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대안을 추구한다. 우리는 종교 활동의 자유, 평등, 인권 및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이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역 기반 지지자들과 협력하여 사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신들이 무슬림이라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캘리암은 무슬림들이 만든 단체이고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모두 무슬림이다. 설립자인 마지드 나와즈(Maajid Nawaz)는 파키스탄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영국인이다. 그는 10대에 이슬람 극단주의를 접하게 됐고 불법단체인 히즈브 우트 타흐리르(Hizb ut-Tahrir)의 대원이 되었다. 히즈브 우트 타흐리르는 세계를 이슬람율법으로 다스리는 칼리프 통치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슬람 이상주의 단체로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마지드는 2001년 이 단체의 요원으로 이집트로 건너가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는데, 옥중에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서 발간된 인권에 대한 책들을 읽고 자신을 양심수라고 주장하여 석방되었다. 2007년 자신을 세속적 무슬림으로 선언하고 극단주의를 비난하는 저술활동 및 방송활동을 하며 ‘반극단주의 싱크탱크’ 캘리암을 설립했다.

캘리암의 총재(President)인 노만 베노만(Noman M. Benotman)은 리비아의 한 부호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나(1967) 80년대 가다피의 철권통치의 희생제물이 되어 파산하고 리비아를 떠났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많은 젊은이들을 규합하여 이슬람을 위해 무기를 들고 싸웠고, 게릴라전을 통해 소련을 몰아내는 전쟁에 승리했다. 노만은 이 게릴라전을 리비아에 적용하기 위하여 귀국하였고, 리비아 이슬람전투기구(Libyan Islamic Fighting Group)를 조직하여 가다피를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싸웠다. 리비아 이슬람전투기구는 가다피가 가장 두려워했던 무장집단이었다고 한다. 노만은 오사마 빈라덴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무장하여 싸웠으나 결국 수많은 그의 동료들이 체포되어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영국으로 건너와서 영국 시민권을 얻었고, 놀랍게도 반극단주의 운동을 펼쳤다. 마침내 영국 정부의 도움을 얻어 가다피에 의해서 테러범으로 분류되어 처형을 기다리는 자신의 동료들을 구출하는데 성공했다. 그 뿐 아니라 캘리암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반극단주의 운동을 벌여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활동

을 하고 있다.

캘리암은 “극단주의에 도전하고 다양성과 변화를 추구하라”는 표어를 내걸고 정치분야 예술분야 그리고 이슬람 교육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영국팀, 북미팀, 지구촌(Global)팀으로 나눠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영국 정부의 8개 부처에 자문을 하고 있으며 그 외 20 여 국가와 국제연합(U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유럽경찰(Europol) 등 세계적인 국제기구에 반극단주의에 대한 정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극장이나 학교 등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영화를 제작하고 전시회나 공연 등을 통해서 젊은 층을 비롯한 더 넓은 청중들에게 자신들의 목적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작성, 발표하여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캘리암은 최근 미얀마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슬림들의 피해에 대한 보고서를 영국 하원에서 발표했다. 지난 5월에는 영국에서 여성학에 피해자들의 상황을 보고하여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20년간 영국에서 17만 명 이상이 여성학대를 받았으며 최근에도 계속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미개한 지역에서 만 일어나는 줄 알았던 여성학대가 영국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세계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캘리암은 보고서의 중간에 반드시 이런 해석을 덧붙이곤 한다. “여성 학대는 이슬람과는 관계가 없으며 고대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잘못된 풍습으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내지만, 여성 학대를 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슬림들이고, 자신의 이슬람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진실은 덮여지고 만다.

이전에 발표한 ‘IS의 매뉴얼’ 혹은 ‘지하디스트 성경’에 관한 보고서 역시 이런 효과를 끌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캘리암이 극단주의를 배격하는 활동은 이슬람에 대한 변호와 동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그것은 이슬람 그 자체가 이미 이슬람 원리주의와 극단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덮어버리고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미화시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의 목표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사실은 “과격화 테러를 저지르는 이슬람 극단주의는 이슬람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슬람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종교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들이 발표한 ‘IS 매뉴얼 반박’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우선은 캘리암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의 모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IS의 매뉴얼’

에 대한 반박 논문을 발표한 캘리암의 연구위원장은 살라 알 안사리 박사(Dr. Salah al Ansari)인데, 그는 역사가 천년이 넘는 이집트 카이로의 알 아즈하르 대학에서 고대와 현대 이슬람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런던중앙사원의 이맘이며 이슬람 강사이다. 그는 영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고 종교 간의 대화 전문가로서 방송 활동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캘리암의 스태프 대부분은 무슬림들이다.

자신들이 무슬림이면서 ①종교 활동의 자유, ②평등, ③인권 및 ④민주주의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홍보한다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다.

첫째로 이슬람에는 종교활동의 자유가 없다.

어떤 이슬람 학자도 이슬람에서는 배교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옥스퍼드 대학의 학술회원이며 이슬람에 대한 책을 120권이나 저술한 유스프 알 가라다위는 “만일 배교자를 죽이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이슬람은 초기에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이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632년에 죽자 무함마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떠났다. 그 때 이슬람을 떠난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무함마드가 배신자들을 죽이겠다고 하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충성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전의 종교로 돌아간 사람들이다. 둘째는 이슬람에 충성을 한다는 것은 주변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 주민들을 공격하여 죽이고 약탈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양심에 거리를 느꼈던 사람들이다. 셋째는 만일 무함마드가 선지자라면 나도 선지자가 되지 못 할 것이 무엇인가? 그는 소위 계시라는 것을 받자하여 열 명도 넘는 아내를 취하고 살인과 약탈을 하면서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런 선지자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고 생각한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슬람을 떠난 것이었다. 이에 이슬람 공동체는 급히 무함마드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아이샤의 아버지 아부바크르를 무함마드의 후계자(Khalifa)로 세우고 배교자들을 처단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그는 2년 동안 칼리프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배교자들을 죽였다. 이슬람 역사는 이를 리따(Ridda:배교전쟁)라고 한다. 만일 아부바크르가 리따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이슬람은 무함마드 사망 직후에 사라졌을 것이다.

배교자들에 대한 처형은 지금까지도 이슬람권에서 철저히 유지되고 있으며 어떤 이슬람국가도 개종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슬림이 종교 활동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그들이 양심을 속이고

있다는 방증일 뿐이다.

둘째로 이들이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꾸란의 어디에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인가? 무슬림들은 비무슬림들보다 우월하며,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수많은 꾸란과 하디스 구절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비무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형당하지 않는다(Ia yuqtal muslimun bi kaafr), 이는 매우 유명한 구절이라서 웬만한 아랍인들은 이 구절을 외우고 있다. 또한 비무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할랄(Halla: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다(Safk dimaa al kuffar hala), 이란인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물론 이요, 비무슬람들을 죽이면 상까지 주는 데요.”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는 일부 몰지각한 극단주의자들의 편견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무슬림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실재이며 현실인 것이다. 그런데 캘리암의 무슬림들이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셋째는 이들이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인권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인권과는 전혀 다르다. 모든 UN 가입국들이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문에 동의를 했지만 이슬람국가들은 이에 반기를 들었다. 이슬람 율법(Shariah)에서 말하는 것과 세계인권선언문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OIC(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회원국들이 1990년 이집트의 카이로에 모여서 대책을 모색한 끝에 이슬람율법에 맞는 카이로인권선언문(The Cairo Declaration on Human Rights in Islam (CDHRI))을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여성이나 타종교인들은 무슬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무슬림들은 개종의 자유가 없으며, 특히 이슬람을 비난하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신성모독법이 적용되는 것 등이다. 현재 193개 UN가입국 중에 OIC 회원국들은 57개국이다. 이제는 어떤 나라도 이슬람의 카이로인권선언문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암의 무슬림들이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넷째로 이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홍보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Democracy)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통치하는 제도다. 국민이 원하면 법도 바꾸고 지도자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이슬람은 신주주의(theo-cracy)다. 인간은 신의 도구이며 종이나 노예일 뿐 권리를 주장할 임정이 못 된다. 이슬람이란 아랍어로 ‘복종’이라는 단어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이슬람이다. 그렇게 복종하는 남성들을 ‘무슬림(Muslim)’이라고 하고 여자는 ‘무슬리마(Muslimah)’라고 한다. 무슬림 여성들은 남성들과 함께 공동 예배에 참여하지도 못하며 남성들이 안 보이는데서 따로 예배를 드린다. 무슬림들은 기도할 때 자신들의 모국어로 기도하지 못하고 무함마드가 사용하던 7세기 아랍어로 기도해야 한다. 무슬림들은 서로 마주보고 기도하지 못한다. 모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방향으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법들은 불권 하나가 바꾸자고 하면 무슬림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무슨 민주주의의 가치를 홍보한다는 말인가? 사실 이들이 말하는 극단주의는 이슬람원리주의라고 불러야 옳을 것이다. 즉 꾸란에서 말하는 대로 그리고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보여준 행동모범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현대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이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579쪽 짜리 ‘IS의 매뉴얼’을 작성한 사람이 아무 압둘라 알 무하지르(Abu Abdullah al Muhajir)인데, 그는 알카에다 또는 IS를 만들고 키워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꾸란의 근거를 집대성하여 제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매뉴얼을 비판한 글을 작성한 살라 알 안사리 박사와는 이집트 알 아즈하르 대학의 동창생이다.

그렇다면 안사리 박사가 이렇게 꾸란에 근거한 이슬람의 원리주의와 모순된 주장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타끼야(Taqiyah), 즉 이슬람공동체의 우익을 위한다면 어떤 거짓말도 허용된다는 교리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대려면 이슬람의 취소교리(Mansukh)를 말할 수 있다. 취소교리는 “처음 계시와 나중 계시가 서로 모순된다면 처음 계시는 나중 계시에 의해서 자동 취소된다”는 것이다. IS의 무하지르의 주장은 나중 계시의 내용이고, 캘리암의 안사리의 주장은 처음 계시의 내용이다. 안사리는 이슬람에서 이미 취소된 구절들을 가지고 세계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전 세계의 무슬림들이 극단주의를 떠난다면 좋겠지만, 이슬람 학자들은 속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슬람을 모르는 비무슬림들을 속이는 데는 매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글을 읽고 속아서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홍보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 위 글은 한국이란인교회 홈페이지(4him.or.kr)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힙니다.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 똑똑한 금융

##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 [선교편지] 광림의료선교회 몽골, 라오스, 필리핀 등에서 의료선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본 몽골선교

저와 가족들은 7월 26일부터 3박 4일간 광림의료선교회에서 준비한 <몽골 단기의료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몽골 의료선교는 세 번째로 익숙한 곳을 가게 되었지만, 한편 처음 단기의료선교를 가게 된 아내 이비인후과 의사인 신혜정 집사, 중1, 초4 두 아들과 함께라, 그리고 팀장 직분을 맡게 되어 더 큰 책임과 부담을 느끼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번 몽골 의료선교팀은 내과(문찬수 장로), 정형외과(최동호 장로), 치과(김종엽 집사), 이비인후과(신혜정 집사), 신경과(김희진 집사), 안과(박상우 성도), 산부인과(윤은혜 성도) 등 7과의 전문의들과 김수연 약사, 의료선교회 회원들의 가족 및 자원봉사자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목요일 늦게 도착한 몽골 공원에서 통관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앞으로 일정에 긴장을 하고 임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알고 호렐로 이동하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일찍 가와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아르빗트 게르 교회로 첫날 이동했습니다. 비가 뿌렸다가 개었다를 반복하는 날씨 속에 야외 천막에서 대기하는 환자들 많이 불편했겠으나, 예년보다 많은 150명 이상의 환자를 각 과에서 돌아가며 진료하였습니다. 다들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도우며 첫날 진료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날인 토요일 이채우 선교사님이 계신 어영계텔 광림교회로 이동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날도 밀려드는 환자를 360명 넘게 접수했고, 환자가 많아 다음날 주일예배 후 진료를 이어갔습

니다. 어린 소아 환자들도 다들 생각보다 씩씩하고 어른스러움에 새삼 놀랐습니다. 이동 중에 상수도 시설이 부족한 게르에 사는 4-5살 남짓 아이들이 물을 길러 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왜 의젓한지 이해되었습니다.

치과의사로서 몽골에 몇 차례 의료선교를 가면서 느끼는 점은 모든 연령에 걸쳐 구강위생관리가 안 되어 갈 때마다 이를 빼기에 급급한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는 잇솔질 등 구강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도포를 함께하도록 준비했고, 발치 등 그간 해오던 진료 외에도 6-13세 아동을 대상으로 50여 명에게 불소도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심정으로 선교지 현지에서 가능한 예방치과진료를 더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예배에서 최근 가족을 잃은 이채우 선교사님의 설교는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새신자 소개 시간에 주뻗뻗하는 기색 없이 손을 번쩍 드는 여러 명의 새신자들을 보며 몽골선교의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간 라오스 의료선교, 큰 폭우 있었지만 잘 진행돼  
열방을 향한 광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시작된 '2018년 라오스 의료선교'는 출발 전부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여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집단

적인 행동, 모임은 공간의 감시 하에 이루어져야 하니 답답함이 앞섰습니다. 더욱이 엄청난 폭우로 인한 홍수가 메콩강 수력발전댐 건설현장을 덮쳐, 댐공사 현장 하류의 수많은 마을과 건물들이 물에 잠기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비탄에 잠겼는데, 그 건설회사가 한국 회사라서 출발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한마음으로 열심히 중보기도 한 덕분에 라오스에서의 의료선교는 아무런 방해 없이 예정된 대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이 끝나면 바로 수해 현상으로 달라갈 예정인 건타이 라오스 선교사님께 팀원들의 작은 정성과 우리의 의약품, 소모품 등을 모아 전달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구한말 가난하고 험벗은 조선 땅에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한 서양 선교사들 덕분에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탄생했듯이, 라오스 현지 선교사와 목회자들의 헌신으로 복음의 자양분이 스며들어, 후에는 라오스에서 반드시 큰 복음의 열매를 거두리라 확신합니다.

이미 이곳에는 10여 년 전 고 한영규 장로님이 헌신하여 봉헌된 '둔이안 교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몽족(라오스 소수민족)들이 따로 독립하여 노천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광림 '청년선교교 해외 100개 성전 건축' 사업의 53번째 교회인 '라이몽 교회'를 18교구 남성숙회 후원으로 봉헌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라오스 삼통 병원에서 진료 대기를 하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

광림교회

주님의 명령을 묵묵히 수행하고 돌아온 라오스 의료선교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00명의 필리핀 어린이들 치료, 8번째 선교센터 건립 계획 중

3개월여 전부터 선교약품 후원을 여러 곳에 요청하여, 예년과 다르게 교회 재정으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해외의료선교를 품을 준비했습니다. 이중 올해 새롭게 의료선교 지원물품으로 노인용 돋보기와 어린이용 치아불소도포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도 피나투보화산 인근 바차완(Batiawan), 나부클롯(Nabuclod), 까마칠레(Camachile)교회 세 곳에서, 아이따(Aeta)부족민을 상대로 진료, 투약 후에 식사도 나누었습니다. 매일 내린 스콜 탓도 있지만, 매년 조금씩이나마 줄어드는 환자 수를 확인하면서, 아이따족이 주님 사랑 안에서 강건해지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여러 가족들이 참여한 풍선아트 및 에코백 꾸미기 봉사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의 긴 행렬은 오후 내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00명의 어린이에게 불소도포를 시행하였고, 많은 어린이들

의 시력을 측정하였습니다. 매해 늘어나는 아이따족 어린이에게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알게해주는 주님의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기도하였습니다.

최근에 박희영 선교사는 8번째 선교센터의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이전에 봉헌한 현지교회들보다 위치와 규모가 월등하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아이따 청년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며, 대학교 통학이 가능한 좋은 위치입니다. 큰 뜻을 실천하게 하는 용기와 필요한 지원을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 “버려두는 형벌” (롬1:28-32)

### 대림다문화센터 대표 이선규 목사 로마서 특강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같이 살고 있으며 이는 외관상 분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쩔 수 없이 공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잘못 했어도 자녀 된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관계도 끊을 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끊으시겠습니까? (롬8:2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지만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



이선규 목사

느니라.(히12:6) 어떤 때는 많이 잘못해도 징계 하신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징계도 사랑의 표현인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건강을 빼앗는 방법 즉 질병으로 징계하는 방법 (계2:21-22)
- 2) 재산을 거두어 가심으로 (말3:8-11)
- 3) 명예를 빼앗아 가심으로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빼앗으면 하루아침에 멸시 천대를 받게 됩니다. 그 외에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 가시기도 하시며 직분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빼앗아 가십니다.

가장 귀중한 생명이 하나님의 장계가 임하면 거두어 가십니다.

1.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모습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찢히기도 하고 열굴에 상처를 입히고 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살아있는 나뭇가지보다 죽어있는 나뭇가지에 굴릴 때가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게도 상처를 줍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한 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렇게 살다보니 이기심의 가지로 다른 사람을 찢고 불순종의 가지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사람은 환을 입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다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은 타락입니다. 그것이 곧 육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 하셨습니다.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주를 통치하심 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이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 타락 후 종교의 씨를 말살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종교의 씨를 공급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종교심을 말살시키려 해도 결코 말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1: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고의적으로 적대 행위를 하며 종교 행위를 말살 하려한' 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신 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

와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고의적으로 적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인간의 종교 의식은 인간성의 일부여서 인생의 어그러짐이나 부패는 가능해도 인성의 파괴가 불가능 하듯 신 의식의 파괴와 박멸은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2.광계지 못함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속에 계속해서 종교와; 씨를 공급 하시는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허가 핑계지 못할 지니라. (롬1:20)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대하여 계속 항쟁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불신이 그러했고 바벨탑 사건이 그러했으며 헬라 철학이나 근세 철학이 그러했습니다. 불가지론, 회의주의, 초자연신교, 무신론이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현재 공학 합성 생명이나 우주개발 등은 신에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일찍이 있었던 자연 진화론은 신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사람은 내세가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하면서도 죽은 자를 위해 제사를 지냅니다. 매우 모순입니다. 내세도 없고 영혼도 없다면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피조물의 기본 특성은 의존성입니다.

절대 자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자를 배재했기 때문에 결국 피조물을 절대화 하여 대체하면서 자기를 거기에 매달리게 하고 피조물에 종속 시킵니다.결국 죄악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31절 단 세절에 불의 추악, 탐욕으로 시작해서 자그마치 21 가지의 죄악

이 나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은 이 죄들 하나하나가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3. 참된 보호막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한 자들은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도덕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도 멈출 줄 모르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돌진하고 있으며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태아는 엄마의 10개월을 동안 자신 지낼 수 있는 최고의 보호막을 갖고 있습니다.그것이 바로 자궁이라는 안락한 집입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태아가 이 어머니의 자궁을 찢고 밖으로 뒤흔쳐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영적으로는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똑 같습니다태아에게 자궁이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보호막인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보호막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두려워 할 일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닌 그냥 내 버려두는 것입니다.많은 사람이 자기 지식 에게는 매를 들어도 다른 사람의 지식 에게는 함부로 매를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같은 조치는 똑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내버려 둬야라고 표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함당하지 못 한 일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형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적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이 들어옵니다.

영적 보호막에서 여러분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정 김광수	발행인 장세규	편집인 김규진	인쇄인 허요섭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가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등록번호: 서울 가50089	등록연월: 1990년 7월 19일	간발: 일간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윤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